

여세 몰아 2월 국회에서도 ...

■ 승기잡은 민주당 전열 재정비

'MB 악법' 저지 전국순회 여론몰이 방송법 반대 등 상임위별 원내투쟁

'골리앗을 이긴 다윗' 민주당이 1차 입법전쟁에서 잡은 승기를 2차 입법전쟁에까지 이어가기 위해 내부 전열 정비에 나섰다.

대여 경쟁 투쟁 과정에서 강한 야당으로서 이미지를 정립하고 전통적 지지층 결속 효과를 본 여세를 몰아 2월부터 벌어질 2차 입법전쟁에서도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향후 입법투쟁에서도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고 보고 오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전인 이달 말까지 전국을 돌며 권역별로 국민보고대회형식의 'MB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하는 등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장의 압박'과 함께 방송법 등 각계전투가 예정된 상임위별로 자체 전략회의, 원내전략회의 등을 진행하며 쟁점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원내투쟁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현실적으로 '국회 본회의장 재점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과 경호권·질서유지권 발동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대표는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부터 상임위별로 적극적으로 임해 우리 당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지혜를 모아 달

라"고 독려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믿어붙이는 전쟁국회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심의하는 자세를 통해 국회의 기풍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당의 '법안 끼워넣기'가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은 이달 25~27일 설 연휴 때 'MB악법' 철폐를 위해 대국민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이 한층 고무돼 있지만 아직 삼패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르다는 내부 지적도 많다. 이번 여야 합의가 전쟁 종료보다는 휴전 성격이 짙은 만큼 2월 임시국회가 산너머 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부 쟁점법안의 경우 '합의처리'에서 '협의처리'로 물러선 데 대한 아쉬움도 있다.

당내 비주류인 민주당의 우원식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MB악법'의 폐기를 위해 긴장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기남 상임고문도 이날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현행 방송법은 여론 독점을 막고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에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만든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 반대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리 잘했지 ... 웃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밝게 웃고 있다.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밝게 웃고 있다.

법안 후폭풍 ... 여권 대개편 불붙나

차명진 "항복문서 서명" 대변인직 사퇴

친추계 모임 원내 지도부 책임론 제기

입법전쟁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선론과 함께 지도부 책임론이 돌고 있으며 '친이대 친박' 간 내부갈등도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차명진 대변인이 7일 "당 지도부가 '항복문서'에 서명했다"며 대변인직을 사퇴, 당 지도부를 당혹하게 했다.

우선 172석의 '거여'(巨與)가 대치 정국 내내 82석의 민주당에 끌려다니면서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는 자기반성을 하고 있다. 결사항전을 외치며 '인간사슬'까지 불사한 민주당과 우호적이지만, 과반여당의

무(無)전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원내전략의 총책임자인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는 분위기다.

당장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교섭단체 합의안은 민의의 전당을 과행으로 불고간 불법과의 아합이고, 경제와 민생을 베풀기 끝으로 내내 때뎌에 대한 굴복"이라며 "지도부의 자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성명 전 모임에서 현 지도부의 사퇴에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지도부는 일찍부터 법안전쟁을 선포했으나 말뿐이었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면서 "저라도 책임을 지고 대변인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박희태 대표는 이를 즉각 반려했다. 하지만 차명진 대변인의 사의 표명은 결국, 당 지도부에 대한 사퇴 압력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박근제 전 대표 등 친박계에 대한 비판도 줄을 잇고 있다. 친박계가 수수방관해 지금과 허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공개적으로 여당책임론을 제기한 박 전 대표에 대한 불만은 상당하다.

친이계인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박 전 대표" 결과적으로는 야당의 손을 들어준 꼴이기 때문에 조금의 이해는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많이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역사교과서 수정 여부 이번주 결론낸다

서울지법 오늘께 가져분 신청 결정

새 학기부터 고교생들이 배울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가 정부 계획대로 수정될 수 있을지가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재판부는 역사교과서가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차질 없이 학생들에게 배포하려면 1월부터 인쇄가 시작돼야 한다는 시급성을

고려해 집중적 심리를 벌여왔으며 현재는 법리검토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결정문 작성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일께 교과서 저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 결정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 등 저자 5명은 지난달 15일 저작권권을 가진 자신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저작권법에서 보장하는 저작권이란 저자가 비록 원고료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자신의 창작물과 관련해 명예를 해치는 왜곡, 삭제 등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재산권과는 구분된다.

재판부는 보름 남짓한 기간 교과서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에 따른 수정으로 저작인격권 상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됐는지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17일 '교과서' 논의를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거쳐 3월 새 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검색창 ▶ "광주한빛고시학원" 방문환영

★★★ 7·9급 공무원 합격의 대세는 ★★★

"역시" 한빛고시학원

[복구청약 062) 234-0324 www.hanbitgosi.co.kr]

개강 ▶ 2월 2일

7·9급 공무원 특강

= 無等은 선배 공무원들이 입증하는 전국 유일의 명문학원임을 자부한다!!! =

9문제풀이반 개강 2월 2일

10기능직: 일반행정사 개강 1월 9일

개강 1월 5일 (주·아·번 모임) (현재예약중)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서타워 (중앙초교 우문앞) 222-4560

www.mdgosi.co.kr

새종행정고시학원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종!!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월 5일(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지원 재직자반

국비지원 고용보험제자 교육비환급 선택순 60명

목포점 개강 1월 5일 하당자구 목포기동병원 앞 대성학원 3층 건물 (061)277-8111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서울점 ☎ 361-8111 ▶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 학장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문빌딩 4층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 44년 전통 ●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은영님 평균 96.7점)

최강의 교수진! 저자적강!

첫진도 (기본서 이름) 개강 1월 5일

주책관리사 "2009년 9월 시험 예상" 첫진도 개강 1월 2일

광주고시학원

직정인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계정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국비지원 개강할때만 **첨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

※ 12월 무료청강 환영합니다